

“다시온 기회 놓치지 않겠다”



차두리가 2일 오후 제3기 베이백호 합류를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 차두리 어제 귀국

“오랜만에 대표팀에 합류한 만큼 새로운 포지션에서 기회를 잡겠다”

8일 가나와 평가전 및 11일 시리아와 2007 아시안컵축구 예선전(이상 오후 8시·서울월드컵경기장)을 앞둔 ‘3기 베이백호’ 해외파 선수들이 속속 입국하는 가운데 수비수로 자리를 변경한 차두리(26·마인츠)가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차두리는 입국장 인터뷰에서 “오랜만에 대표팀에 합류하게 된 만큼 기분 좋게 입국했다. 새로운 포지션(수비수)에 적응하고 있고 매주 경기에 나서면서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다”며 “대표팀에서 기회를 살려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차두리에 앞서 귀국한 해외파 선수는 김동진(제니트).

김동진은 제니트-스파르타크 날치크전을 앞두고 경고 누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되면서 지난 1일 일찌감치 귀국했다.

올 시즌 2호 골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설기현(레딩)은 3일 오후 4시20분 KE908편으로 입국하고, 러시아에서 활약중인 이호(제니트)는 이보다 1시간여 빠른 낮 1시 5분에 도착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초 3일 설기현과 함께 입국하기로 했던 이영표(토트넘)는 발목 부상에 따른 구단 의료진의 진단을 지켜보기 위해 입국 일정을 하루 늦췄다.

반면 일본 프로축구 J-리그에서 뛰고 있는 조재진(시미즈)과 김정우(나고야)는 7일 주말경기를 마친 뒤 각각 8일 오전 11시 30분과 오전 11시50분에 입국해 뒤늦게 베이백호에 합류하게 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설기현이 1일 밤(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 업트파크에서 열린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2006~2007 프리미어리그 7차전 원정경기에서 전반 1분 만에 선제 결승골을 터트린 후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빛속 ‘벼락슛’ 설기현 2호골

‘스나이퍼’ 설기현(27·레딩 FC)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2호 골을 작렬했다.

설기현은 1일 밤(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 업트파크에서 열린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2006~2007 프리미어리그 7차전 원정경기에서 오른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 전반 1분 만에 선제 결승골을 터트려 1-0 승리를 이끌었다.

이로써 설기현은 지난달 16일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시즌 5차전에서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을 성공시킨 뒤 2경기 만에 2호골을 맞췄다.

이날 골로 설기현은 벌써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최다 득점자가 됐다. 79분을 뛰고 후반 34분 스티븐 헨트와 교체된 설기현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7경기 모두에 선발 출전, 2골 2도움을 기록 중이다.

장대비 속에서 시작된 이날 경기에서 킥 오프 휘슬이 울리자마자 설기현의 발끝에서 벼락같은 골이 터져 나왔다.

전반 1분 상대 미드필드 왼쪽에서 얻은 프리킥 때 보비 콘베이가 옆에 있던 설기현에게 살짝 볼을 흘려줬다. 설기현은 주춤거리다 슈팅 타이밍을 놓친 듯 했지만 이내 상대 수비 한 명을 따돌리고 중앙 쪽으로 공을 몬 뒤 대포알 같은 오른발 중거리슛으로 골그물을 갈랐다.

설기현의 발을 떠난 볼은 약 28m를 뺨뺨 쏠려쳐 날아가 골문 왼쪽 상단 구석에 꽂혔다.

레딩은 설기현의 선제골을 끝까지 잘 지켜 결국 리그 4승째(1무2패)를 챙겼다.

한편 설기현은 2일 스포츠 전문사이트 ESPN사커넷 (<http://soccer.espn.go.com>)이 선정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정경호(광주) 대표팀 합류 가능성

팀 복귀 후 눈부신 활약 베이백 감독 “만족스럽다”

‘3기 베이백호’가 8일 가나와 A매치, 11일 시리아와 아시안컵축구 예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부상을 털고 돌아온 ‘육군 병장’ 정경호(광주 상무)의 대표팀 재등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독일월드컵축구 대표로 뽑혔지만 조별리그 한 경기도 뛰지 못한 정경호는 귀국한 뒤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왼쪽 발목 인대가 손상돼 K-리그에 출전하지 못했다.

한 달 여 재활을 하는 동안 정경호는 잊혀졌고, 지난 8월23일 K-리그 후반기 개막전부터 그라운드에서 나섰지만 새로 출범한 베이백호는 정경호를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정경호는 후반기 7라운드까지 꾸준히 선발 또는 교체 멤버로 출전하며 컨디션을 가다듬었고 지난달 9일 성남과 홈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결승골을 어시스트하며 화려한 부활을 알렸다.

지난달 30일 수원과 원정 경기에서는 특유의 빠른 측면 돌파로 팀의 역습을 이끌었으며 경기 종료 직전에는 미드필드 왼쪽에서 최상의 중거리포를 날리기도 했다.

당시 슈팅은 크로스를 맞춰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경기를 관전하던 압신 고트비 대표팀 코치와 코사 골키퍼 코치에게 충분히 눈도장을 찍을 수 있었다.

더구나 정경호는 지난달 26일 발표된 가나-시리아전 대표 선수 명단(31명)에는 빠졌지만, 바로 다음날인 27일 베이백 대표팀 감독이 “이 명단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주말 K-리그를 관전하고 멤버를 교체할 수도 있다”고 말해 희망이 생겼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광산구에 2009년까지 9홀 골프장”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오는 2009년까지 광주시 광산구와 강원도 정선군에 대중골프장(9홀)을 조성한다고 2일 밝혔다. 체육공단은 광산, 정선, 영광, 충북 보은 등 4곳을 대상으로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발 용이성과 사업성, 이용률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광산과 정산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산구 골프장 조성 예정지는 옛 군부대 부지로 평동산단지와 연계해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정선군은 강원랜드에 인접한 폐탄광지구로 주변 권선단지와 연계해 개발된다.

골프장 조성에는 최대 150억원이 투입되고 재원은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으로 충

당한다. 해당 지자체는 토지를 제공한다. 광주, 정선 골프장은 2008년 하반기 착공해 2009년 말 또는 2010년 초 개장할 계획이다.

체육공단은 향후 10년에 걸쳐 전국에 대중골프장 20개소를 조성하기로 하고 내년 초에도 골프장 조성 후보지를 공모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우즈 PGA 6개대회 연속 우승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6개 대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우즈는 2일 영국 런던 근교의 허퍼데서 그로브골프장에서 열린 월드골프챔피언십(WGC) 시리즈 아메리칸익스프레스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7타를 쳐 4라운드 합계 23언더파 261타로 정상에 올랐다. 애덤 스콧(호주)과 이안 풀터(잉글랜드) 등 공동 2위를 8타차로 따돌린 우승.

지난 7월 브리티시오픈을 제패하면서 연속 행진에 시동을 건 우즈는 뷰익오픈, PGA 챔피언십, 브리시스턴 인비테이셔널, 도이

체방크 챔피언십, 그리고 이번 대회까지 2개월 동안 출전한 6개 PGA 투어 대회에서 모조리 우승하는 괴력을 발휘했다.

지난 1999년과 2000년에 걸쳐 6연승을 거둔 적이 있는 우즈는 바이런 넬슨이 1945년에 세운 PGA 투어 최다 연승(11연승) 기록에도 도전할 디딤돌을 놓았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출전한 US오픈에서 컷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우즈는 이후 9차례 출전한 대회에서 PGA 투어 웨스턴오픈(2위)과 유럽프로골프 투어 HSBC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등 단 2개 대회에서 우승을 놓쳤을 뿐이다.



3일(화)

- ▲06/07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강원랜드-춘천)(14 : 00·KBS SKY Sports)
- ▲프로축구 후기리그(인천-대전)(14 : 50·SBS스포츠)
- ▲K-리그(포항-부산)(13 : 55·KBS1), (전남-수원)(15 : 30·MBC ESPN)
- ▲제1회 Super Fight(임요환-마재윤) (홍진호-임요환)(17 : 00·Xports)
-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요코하마)(17 : 50·SBS스포츠)
- ▲K-리그(성남 일화-경남 FC)(19 : 00·KBS SKY Sports)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ukjapharm.co.kr

Love is the best Medicine

사람이 자연을 사랑한다면...
오히려 자연은 존재하는 것 만으로도
사람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정성스레 쌓아올린 돌탑 앞에 작은 소원을 맡아봅니다.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진 않지만
소원을 비는 정성만으로도 사랑을 주는것.
그것이 국제약품이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안과 일반의약품

- **키블러 인안액**
안과 질환의 원인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안액입니다. 안과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 **신도통 쿨 점안액**
안과 질환의 원인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점안액입니다. 안과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 **타이플 점안액**
안과 질환의 원인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점안액입니다. 안과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고객센터 문의 : 02-622-2290 (주식회사) 02-622-2290 (주식회사) 02-622-2290 (주식회사)

국제약품이 키블러가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고객은 모든 세대의 소비자가 합당한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광고심의의뢰 : 878-0100